


15장. 20세기 초의 응용심리학의 떠오름과 심리학의 확장, 심리학의 미래 조망

15-1 file no.1

2007년 2학기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강의
15주차 강의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종합!

20세기초의 응용심리학의 떠오름과
심리학의 확장, 심리학의 미래




15-1-1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의 15주차 마지막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강의의 주제는, 21세기 초의 응용심리학의 떠오름과, 심리학의 확장, 그리고 심리학의 미래 조망이다.

15-1 file no.2

15주 전체 차례

- 1. 20세기 초까지의 심리학의 주요 흐름
 - 2. 20세기 초 이후: 응용심리학의 떠오름
 - 3. 심리학의 변화 :
 - 3.1. 미국 1940-1950
 - 3.2. 1950년대 이후 : 인지과학의 대두
 - 4. 심리학의 확장과 변화 추세
 - 5. 심리학에 대한 이론체계적 종합분석
 - 6. 동양, 한국심리학
 - 7. 맺는 말
 - 부록: 참고자료
- 
- 15-1-2

강의는 먼저 20세기 초까지의 심리학의 주요 흐름을 개관하고, 20세기 초 이후에 응용심리학의 떠오름을 미국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이후에 심리학의 변화를 미국에서 1940년대, 50년대 심리학 중심으로 다루고, 1950년대 이후에 인지과학의 대두를 언급하고, 그리고 심리학의 확장과 변화추세를 이야기한 하겠다. 이번 주 2회 차에서는 심리학에 대한 이론 체계적 종합분석, 동양 한국 심리학, 맺는말 순으로 진행하겠다.

15-1 file no.3

15주-1회차 학습 목차



- 1. 20세기 초까지의 심리학의 주요 흐름
- 2. 20세기 초 이후: 응용심리학의 떠오름
- 3. 심리학의 변화 :
 - 3.1. 미국 1940-1950
 - 3.2. 1950년대 이후 : 인지과학의 대두
- 4. 심리학의 확장 **과 변화 추세**

14-1-3

1회 차 강의의 학습목차를 보면, 20세기 초까지의 심리학의 주요흐름을 개관을 하고, 20세기 이후의 응용심리학의 떠오름을 살펴보고, 심리학의 확장과 변화추세가 다루어진다.

15-1 file no.4

15주-1회차 학습 목표



- 1. 20세기 초까지의 심리학의 주요 흐름을 파악한다
- 2. 20세기 초 이후의 심리학의 확장이 어떤 응용심리학 분야의 창출과 함께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한다
- 3. 20세기의 심리학의 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특히 인지과학과의 연결 측면을 파악한다

14-1-4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15-1 file no.5

1. 20세기초까지의 심리학의 주요 흐름



- 기초 이론적 심리학 중심의 개관

14-1-5

15주 1회 차에서는 20세기 초까지의 심리학의 주요흐름을 파악을 하고, 20세기 초 이후의 심리학의 확장이 어떤 응용심리학 분야의 창출과 함께 이루어 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0세기 심리학의 변화추세를 파악하는데 특히 인지심리학, 인지과학과의 연결측면을 파악한다.

[1.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1.1].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탄생이전의 심리학

그러면 먼저 20초까지의 심리학의 주요 흐름을 개관을 해보겠다. 기초이론적 심리학 중심으로 개관을 먼저하고 다음에 응용심리의 주요 흐름을 개관하겠다.

5-1 file no.6

1.1.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탄생 이전의 심리학



- 희랍의 철학에서 출발
- 희랍철학의 합리론과 경험론의 전통
-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 희랍의 경험주의의 점진적 쇠퇴
- 기독교 암흑시대: 영혼, 마음 개념 가다듬기
 - Augustine, Aquinas
- 이슬람의 경험주의의 중요한 역할
- 르네상스의 대두
 -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태동

14-1-6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탄생 이전의 심리학 역사는 이미 몇 주 전에 다룬 내용이다. 희랍의 철학에서 심리학이 출발하였고, 희랍철학의 합리론과 경험론의 전통에서 심리학의 주제가 다뤄졌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상당히 남아 있어서 경험주의적 접근이 시작됐다가, 희랍의 경험주의가 점진적으로 쇠퇴되면서, 기독교 암흑시대에서 영혼, 마음 개념을 나름대로 가다듬기가 있었고, Augustine이나 Aquinas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초월주의적 입장에서 심리학의 주제를 다뤘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경험주의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과학적 탐구가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서구에서 르네상스가 대두되어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인본주의적 심리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1 file no.7



- Descartes와 현대심리학의 출발
 - 심신이원론, 기계론
- 영국의 경험론
- 연합주의, 프랑스의 유물론, 기계론
- 독일의 합리론, Nativism(생득론)
 - Leibniz, Spinoza
- 경험론과 합리론의 연결 시도
 - Kant, 스코티쉬 학파
- 실험생리학의 떠오름

14-1-7

17세기 들어와서 서구에서 Descartes와 현대심리학의 출발이 일어났고, 심신이원론, 기계론 이런 관점이 전개되어서 영국의 경험론, 연합주의, 프랑스의 유물론, 기계론 등이 상당히 확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합리론, 생득론이 생겨나고 여기서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같은 학자의 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의 연결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독일의 칸트에게서 나타났고, 스코티쉬학파에서도 나타났다. 그런 후에 유럽대륙중심으로 실험생리학이 떠오르게 되었고, 분트 심리학과 과학적 심리학의 탄생이 있었다.

15-1 file no.8

1.2. Wundt와 과학적 심리학의 탄생



- Wundt에 영향 준 사조
 - 독일 실험생리학 -실험방법
 - 영국 연합주의 - 경험론
 - 실험론/내성법/연상이론/감각 강조/심적 화학
 - 반응시간 연구
 - 심리(정신)물리학 전통
 - 진화론
 - 프랑스 유물론과 기계론, 엄밀과학의 강조
 - 수와 수량화:
 - 프랑스코학, Herbart 등

14-1-8

[1.2]. Wundt와 과학적 심리학의 탄생

빌헬름 분트에 의해 심리학이 비로소 과학으로써 시작되었다. 분트에 영향을 준 사조로서는, 독일의 실험생리학 실험방법론과 영국의 연합주의 경험론이 있었고, 실험론, 내성법, 연장이론, 감각의 강조, 심적 화학(mental chemistry), Donders 등의 반응시간 연구, 정신물리학 등이 차례로 있었다. 이러한 전통들에 영향을 받아서 분트가 새로운 심리학 방법론을 전개했다. 분트는 진화론의 영향도 받았고 프랑스 유물론과 기계론, 엄밀과학의 강조의 영향도 받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과학에서의 수량화의 경향으로 프랑스의 과학에서 수

학이 강조된 것과, 이후에 철학과 생리학 심리학을 연결한 Herbart 등이 심리현상을 수리화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

15-1 file no.9

[1.3]. Wundt 이후의 심리학

1.3. Wundt 이후의 심리학



- Wundt의 제자와 독일심리학
- Titchener와 구성주의 심리학
- W. James와 미국의 기능주의 심리학
- 행동주의 심리학
 - ←→ 동물심리학
 - 신행동주의 심리학
- 정신분석학
- 형태주의 심리학
- 응용심리학

14-1-9

분트이후의 심리학을 살펴보자면, 분트의 제자들 중심으로 분트심리학이 전개되었고, 티치너의 구성주의 심리학, 윌리엄 제임스와 미국의 기능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정신분석학, 형태주의 심리학, 응용심리학의 대두 등의, 여러 흐름들이 있었다.

15-1 file no.10

[1.4].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반발

1.4.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반발 (20세기 전반)



- 인본주의 심리학
 - 정신분석학에도 반발
- 사회심리학의 형성과 인지적 관점
 - Lewin, Festinger 등
- 유럽의 인지적 관점
 - Piaget, Vygotsky, Bartlett.
- 인접학문의 영향과 인지주의의 형성
 - 정보처리패러다임의 기초
 - 인지과학출발의 배경 제공

14-1-10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반발이 전개되었는데, 20세기 중반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반발 전체를 살펴본다면 첫

째 반발로 인본주의 심리학이 전개되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에도 반발한 입장이었다.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이 일어나서 인지적 관점을 전개했다. K. Lewin, L. Festinger 등의 '인지적 관점에 사회심리학을 덧붙인' 입장이 전개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미국의 학문과는 독립적으로 인지적 관점이 성행했다. 스위스의 Piaget나 러시아의 Vygotsky나 영국의 Bartlett 등의 학자들이 인지적 관점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학문의 중심이 서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져서 미국 중심으로 점차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이외의 인접 다른 학문들의 영향이 연결되어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인지주의]가 형성되고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이 출발하였다. 이것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15-1 file no.11



- 심리학의 확장
- ← 응용심리학의 떠오름
- ← 순수 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의 구분
- ←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인지주의의 등장과 인지과학의 형성
 -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에 대한 설명은 이전 강의 내용 참조
- ← 신경과학과의 연결의 긴밀화
- ← 사회적, 문화적 관점의 부상

14-1-11

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심리학의 확장이 일어났다. 주로 [응용심리학]의 떠오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점차 순수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의 구분이 강하게 됐다. 한편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인지주의의 등장과 인지과학의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신경과학과 심리학의 연결이 긴밀해지고, 심리학 내에서 점차 사회적 문화적 관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15-1 file no.12

2. 응용심리학의 떠오름: 미국 심리학



- 인간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 중세: 신에 대한 믿음, 교회를 통하여 다스림
 - 19세기: 이성에 대한 믿음: 법률 통해 다스림
 - 20세기: 과학에 대한 믿음: 병원을 통해 다스림
 - > 이 과정에서 심리학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학문과 제도의 하나로 떠오름

14-1-12

[2. 응용심리학의 떠오름: 미국의 심리학]

응용심리학이 미국 심리학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차 및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응용심리학의 발전이 전개되었다. 인간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그 당시의 인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중세에서는 서구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였기에, 교회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치료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천주교의 [사제]들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19세기에서는 이성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법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했고,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병원을 통해 다스리려고 하는 시도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이 서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학문과 제도의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15-1 file no.13

2.1. 응용심리학의 떠오름 (1896-1918)



- 미국에서는 진보주의, 개발론이 20세기 전반의 중요한 입장이었음
- 미국에서 사회의 변화의 빠름과, social control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에 바탕하여
- 미국심리학에서는 대학이 지방의 사정을 고려한 분권적 대학이었다는 것에 근거하고
- 실용주의, 기능주의에 바탕하여 응용심리학이 부상함
 - J. Dewey: 마음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실용적 관점 제시
 - 기능주의: 마음의 기능: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것
 - 적응과정이 중요,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심리학의 관심
 - 아동이 가정에 적응하기, 부모가 아동에 적응하기,
 - 노동자가 작업장에 적응하기, 군인이 군대생활에 적응하기

15-1-13

[2.1]. 응용 심리학의 떠오름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에서는 실용주의와 진보주의적 개발론이 20세기 전반에 중요한 입장이었다. 미국에서는 사회변화가 빠르고 사회적인 통제, 제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에 바탕을 해서, 대학이 지방의 사정을 고려한 분권적 대학이었다는 것에 근거하고 실용주의와 기능주의에 바탕을 두고 [응용심리학]이 점차 떠오르게 되었다.

J. Dewey는 마음은 사회적 생물의 마음이란 실용적 관점을 제시했고 그 영향을 받아 기능주의가 출발했다. 그는 마음의 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적응을 하게 하는 그 측면을 심리학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주의 심리학이 지배적인 미국에서는 적응과정이 중요하고 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심리학의 주관심이 되었고, 아동이 가정에 적응하기, 부모가 아동에 적응하기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근로자가 작업장에 적응하기, 군인이 군대생활에 적응하기 등도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15-1 file no.14

응용심리학



- Gall의 골상학이 응용심리학의 근대적 출발점?
- 응용심리학의 선구자:
 - Galton: 심적 능력 측정, 양화
- 미국에서의 심리검사 추세:
 - Cattell, Jastrow, Terman: 국제 박람회에 booth
 - 미국에서의 교육에의 심리학 응용: Stanley Hall
- 산업심리학:
 - Muensterberg 등: 1차대전 이후
- 임상심리학:
 - Witmer: 1차대전 이후에 현재 형태로 발전

14-1-14

옛날에는 기초심리학 즉 이론심리학이 있었는데, 응용심리학이 언제부터 생겼는가를 살펴 본다면 골상학이 응용심리학의 근대적 출발점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골상학 이후에 현대 응용심리학의 선구자는 갈튼(Sir Francis Galton; <https://www.google.com/search?hl=en&q=Galton>)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다윈의 사촌으로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인차이(differential psychology) 중심의 응용심리학을 전개한 사람이었다. 그는 심적능력을 측정하고 양화하는, 그러니까 현재 지능검사의 선구자였다. 그의 그러한 시도에 의하여 미국에서 심리검사(mental tests)가 개발되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후에 R. Cattell이라든지 D. Jastrow, L. Terman,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심리검사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1984-1985) 열린 국제박람회에서는 박람회에 온 사람들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

미국에서의 교육심리학의 응용이 있었는데, 스탠리 홀(S. Hall) 등은 교육심리학을 발전시키면서 심리학을 교육학에 연결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산업심리학의 발전이다. 심리학을 과학으로 출발시킨 분트의 제자 중에 1880년대에 Hugo Münsterberg와 James McKeen Cattell이 있었는데, Cattell은 대학 학부는 미국에서 다녔지만 대학원은 독일로 가서 처음에는 괴팅겐대학의 Herman Lotze의 학생으로 후에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Wundt의 학생 및 조교로 일했다. 그는 후에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그 당시만 해도 과학으로서 잘 인정받지 못하던 심리학을 과학으로 올려놓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맥락에서 그의 개인차 연구와 [심리검사] 개발은 크게 공헌을 하였다.

산업심리학과 관련되어서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응용한 것은 심리검사였다고 볼 수 있다. 1890년에 Cattell이 심리검사(Mental Test)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1893년에 쉬카고 세계 박람회(엑스포)에서 심리검사 부스가 만들어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1차 대전 이후에 산업심리학이 발전되면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산업심리학]의 명칭이 [산업 및 조직 심리학(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O 심리학)]으로 바뀌지게 되었다. 산업심리학은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빠르게 발전되었다.

15-1 file no.15

[2.2.]. 심리검사

2.2. 심리검사

- 이와 관련한 심리학의 최초의 응용은 심리검사였음
- 1890Cattell, -mental test 용어 처음 사용
- 1893: 칼럼비안 맥스포: 심리검사 부스가 만들어져 인기 끌음
- 1896: Lightner Witmer: 첫 psychological clinic 열음, 이후 다른 사람들도
 - 주로 학교생활에 문제 있는 아동(학습지진아) 검사가 주 업무
 - -1905: feebleminded students 훈련센터
 - -1908-정신건강 movement 시도
 - -정신병 환자를 심리학자가 검사와 연구
 - -1901:심리학의 산업, 기업에의 적용 시작
 - - 1915 기업 인력 선발 검사 사용됨
- 이러한 움직임들이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연결된 대규모 응용심리 움직임이 시작됨

14-1-18

한편 임상심리학도 2차 대전 이후에 현재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임상심리학이란 명칭을 처음으로 만든 Lightner Witmer는 1896년에 미국 펜실바니아대학에서 처음으로 심리치료소(psychological clinic)를 처음 열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심리치료를 하는 작은 기관들을 열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 검사가 주 업무였고, 1905년에는 지진아라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훈련하는 훈련센터가 만들어졌고, 1908년에 정신건강 사회운동이 일어났고, 정신병 환자를 심리학자가 검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산업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1901년에 산업과 기업에 심리학의 적용이 시작됐고, 1915년에 기업인력선발검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응용심리학들이 연결되어서 대규모 응용심리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15-1 file no.16

[2.3.]. 1차대전과 심리학

2.3. 1차대전과 심리학

- 1차대전 참전 선포 이틀 후부터 미국심리학회는 전쟁관련 심리학 위원회 조직하여 대응.
- Walter D. Scott - 전쟁선에서 인력 분류 연구: 평정척도 175명의 전문응용심리학자 참여
- Yerkes- 신병 부적합자 걸러내기 테스트: 집단심리검사: Army Alpha Test: 5등급분류: 117만 병들 검사
 - 대전 전: 응용심리학이 대체로 서로 고립된 채 소규모로 진행됨
 - 대전 중: - 집단적 통합된 노력
 - 대전 후: - 응용심리학이 널리 홍보, 인정되고 학습지제아와 이민자에 대한 검사 실시
- -심리검사의 대거 전파를 통하여,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촉진됨
- -군인 선발을 넘어서서, 기업, 산업, 장면에서, 교육장면에서 심리검사 활용이 급증함, 새로운 요구에 맞는 심리검사 개발됨

14-1-19

1차 세계대전 참전선포 이틀 후부터 미국 심리학회는 전쟁관련 심리학 위원회를 조직해

서 전쟁 지원에 참여했다. 미국 심리학자 Wallter D. Scott은 전쟁성에서 (지금은 없어져서 국방성만 있지만 예전에는 전쟁성이 있었다.) 참전하는 병사들의 인력분류를 연구하고, 평정하는 일에 75명의 전문 응용심리학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리학사적으로 대단한 일이었다.

그 다음에 Yerkes는 미국에서 병사들을 선발할 때 새로 들어오는 병사 중에서 부적합 환자를 골라내는 [Army Alpha Test]검사를 만들어서 (집단심리검사), 군대 신병들을 5등급으로 분류하면서 117 만 명에게 집단 심리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당시 인력의 대다수가 심리검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대전 전에는 응용심리학이 대체로 서로 고립된 채 소규모로 진행됐는데, 대전 중에는 집단적으로 통합해서 시작되고(주로 미국에서), 1차대전 이후에는 응용심리학이 널리 홍보되고, 인정되고, 그 다음에 학습 지체와 미국에선 특히 이민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활용이 되었다. 심리검사의 대거전파를 통해서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촉진되었고 군인선발을 넘어서서 전쟁이 끝나니까 기업이나 산업장면에서, 그리고 교육장면 내에서, 심리검사활용이 급증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심리검사도 개발됐다.

15-1 file no.17

[2.4.]. _우생학과 심리학

2.4. 우생학과 사회적 논쟁 속의 미국심리학: 1917-1940



- 병사와 학습지진아들의 지능을 검사한 결과가 축적되고, 미국인의 평균지능이 13.08세, 16세 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과연 이러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계속 지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염려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한 저능인들이 미국사회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염려하고, 이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을 특정 국가 중심으로 하고 기타 국가들은 제외하고 하여 법을 제정하고,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저능한 사람들, 범죄인들 등의 혈통에서는 신이제한, 불임추출하는 것을 법제화함 -> negative eugenics. 이러한 움직임에 심리학자들의 일부가 한 역할을 함.
- - 그러나 반우생학적 증거와 비판이 제기되고, 2차대전 발발하여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문제화된 후에야 이런 움직임이 가라앉음
- - 이러한 부정적 우생학은 미국, 독일, 스웨덴 등에도 있었음

15-1-17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우생학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우생학의 문제는 유럽의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있었다. 미국의 병사와 학습지진아들의 검사결과 미국인의 평균지능이 13.08세 또는 16세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과연 이러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계속 지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염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특정국가 중심으로 해서 백인들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낮은 지능의 국가라고 생각되는 나라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막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우생학 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발발하여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미국 내의 이런 우생학 추구 경향이 가라앉았다.

15-1 file no.18

2.5. 산업과 심리학



- 진보-발전주의적 사회에서 효율성이 핵심 주제가 되고 과학을 통하여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움직임 가동됨
- Taylor: 1911; 경영의 과학적 원리: 과학적 심리학 응용 목표
 - 작업, 일을 경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영하여야
- 일차대전 이후 기업에서 산업심리학이 급격히 인기를 얻음, 주요 회사에서 적극 활용.
- 작업장에서의 의미와 개인의 감정과 가치의 중요성 인정
- 산업장면에서의 개인의 특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검사, 도구가 개발됨
- 산업장면에서의 사원 카운슬링이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회사들에서 심리학자 채용, 활용

14-1-18

[2.5.]. ...산업과 심리학

산업과 심리학의 관련성을 보자면 진보적이고 발전주의적 사회에서, 효율성이 핵심주제가 되고 과학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기업들에서 가동되고 그러한 움직임이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이론을 테일러(F. W. Taylor)가 1911년 경영의 과학적 원리(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와 과학적 심리학 응용목표 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 했고 이것이 경영학 기업관리 등에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되었다.

1차 대전 이후, 기업에서 산업심리학이 급격히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주요 회사에서도 산업심리학을 상당히 활용을 했다. 그 다음에 산업장면에서 개인의 특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검사도구들이 개발되고, 산업장면에서의 사원 카운슬링이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회사들에서 심리학자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15-1 file no.19

[2.6.]. 가족, 청소년과 심리학

2.6. 가족, 청소년 심리학



- -1920년대의 미국의 청소년들의 심리적 혼미, 반항
 - > 가정의 위기
- -가정의 기능 회복하고 청소년 적을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문제 상담, 대처하는 기관, 인력 도입, 가족 구성원들의 훈련, 상담, 문제 대처 노력
- -Margaret Mead: 사모아 섬의 인간적 문제없는 사회 소개
- -> 사회의 경향성, 청소년이 추구하는 바의 변화 시작:
 - 열린 사회, 성의 자유, 도덕률의 변화
- -> 무생화과는 반대방향으로의 사회적 변화 추진
- -> 심리학자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중심 역할: 청소년, 부모,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문제해결 제시

14-1-19

가족 및 청소년 심리학의 측면을 살펴보면, 1차 대전 후, 1920년대의 미국 청소년들의 심리적 혼미, 반항 등 그런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가정의 위기가 생기고, 따라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청소년 적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 문제 상담, 대처하는 기관, 인력투입, 가족구성원들의 훈련, 상담, 문제대처 노력들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 당시에 사회 경향성은 청소년이 추구하는 바가 열린 사회, 성의 자유, 도덕의 변화 등이 있었다. 그래서 우생학과는 반대의 움직임이 생겨났다. 사람들 간에 재능의 차이가 있으니까 재능이 낮은 사람들은 배제하려고 했던 그런 우생학 경향과는 달리,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의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청소년과 부모사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해결을 제시했다.

15-1 file no.20

[2.7.]. 응용심리학: 종합

2.7. 응용심리 떠오름: 종합



- -1920년대 미국 사회에서 심리학의 인기 급증
- <- 심리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 시대의 종교적 규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
- <- 사회적 통제를 하는 과학적 새 기술을 제공
- 1차적 인기심리학
 - Freudianism: 성의 해방, 억압 없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양육
- 2차적 인기심리학: 행동주의
 - -> 프로이트 비판: 환경이 행동 결정
 - -> 무생학 비판: 환경이 행동 결정
 - -> 행동 조성 방법 제시: 자녀 양육방법, 광고효과
 - -> Skinner->행동 공학
 - -> Watson- how to raise children
 - -> Skinner: Walden II
- -> 미국의 진보주의 그룹, 사회에 인간행동을 통제 조성할 기술 제시함

14-1-20

그래서 응용심리학이 심리학분야 중에서 떠오르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종합을 해본다면 1920년대 미국 사회에서 심리학의 인기가 급증하였다. 이때에 심리학이 왜 미국 사회서 떠오르게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 시대의 종교적 규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심리학은 사회적 통제를 하는 과학적 기술을 제공을 했다. 물론 심리학이 인기를 얻은 것은 일차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입장의 확장이었다. 성의해방이라든지 억압 없이 자유롭게 자란다는지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와서 프로이트 입장을 비판하고 우생학도 비판하고 모든 것이 환경의 조건형성을 통해서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해서 자녀양육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스키너가 제공하고 그것이 행동공학이란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당시 미국 사회의 실용주의적 경향에 부합되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시조였던 Watson 도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가 하는 입장을 제시를 했고, Skinner는 그것을 넘어서 행동공학(Behavior Engineering)이라는,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해서 인간의 행동을 조성한다는 그런 분야를 만들어 전개했고, 이것이 미국의 실용적 진보주

의 사회에 인간행동을 통제하고 조성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15-1 file no.21

3. 심리학의 확장

3. 심리학의 확장: 1940-1960년대 미국심리학



14-1-21

그 다음의 심리학의 확장을 언급하자면, 1940년대 1960년대 미국심리학의 전개를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할 수 있다.

15-1 file no.22

[3.1.]. 심리학의 변화: 미국 응용심리학

3.1. 심리학의 변화: 미국의 응용심리학 1940-1950



- 2차대전 중, 이후:
- 작은 심리학이
→ 뚜렷한 주목받는 큰 학문으로 변하고
- 순수이론 분야와 **응용분야**가 단합되고
- 심리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 **심리치료**가 정상적인 좋은 응용심리 직업으로 정착
- 각종 정부기관, 회사, 학교, 민간기관에서 심리학 전문가 채용 활발

14-1-22

1940에서 1950년대, 그러니까 2차대전 말에서부터 대전이 끝나고 직후 4, 5 년간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황 이야기이다. 2차 대전 중에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미국인들

이 군복무를 하면서, 또는 군에 들어갈 때 심리검사를 받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면서 인간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심리학]이 뚜렷한, 주목받는 학문으로 변하였다. 그 이전에는 심리학이 작은 학문이었는데 이제는 큰 학문으로 변하고 순수이론 분야와 응용분야가 단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응용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기초 순수 이론 분야의 사람들과 응용심리학분야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미국 사회에서 조성된 것이다.

그 다음에 심리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심리치료라는 사회적 행위와 응용심리 심리치료가 정상적인 좋은 응용심리직업으로 정착되니까, 각종 전문기관 회사와 학교 민간기관에서 심리학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런 경향이 미국에서 활발해졌다.

15-1 file no.23



- 1920년대, 30년대:
 - 미국심리학회 **응용심리전문가**를 논문 발표했어야 회원으로 받아줌
 - 심리학회의 자격증 양산
 - → 응용심리학자들이 분리하여 학회를 떠나가려 하자 응용심리 분과를 설정하여줌
- 그러나 1930: Association of Consulting Psychology 등과 같이 응용심리전문가들이 따로 학회를 만들어 분할하는 경향 강하여짐.
- 2차대전이 발발하자 대학의 기초심리학자와 응용적 심리학자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 전쟁중의 심리학자의 활동과 전쟁 이후의 계획까지 세움

14-1-23

1920, 1930년대에는 계속해서 응용심리를 강조하게 되고 응용심리분야가 많이 생기고, 응용심리 분야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동물연구와 같은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중심의 심리학에서 떠나려고 하니,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응용심리분과를 만들어 주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대학의 기초심리학자와 응용심리학자가 협력해서 전쟁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15-1 file no.24



- 워싱턴 시에 Office of Psychological Personnel 시작됨
- 전쟁이 시작되자 병사 선발 및 인사관리에 심리학자 투입됨
- 남자들이 전선에 간 후, 각종 산업체에 여성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일어나는 제반 효율성 문제 해결 위해
 - 심리학자 투입되고 산업심리, 심리검사, 직업상담, 노동상담 등의 발전이 이루어짐
- human relations 시기

14-1-24

전쟁 중에(1942년) 미국 워싱턴 시에 ‘Office of Psychological Personnel’, 그리니까 [심리학 인력 사무소]라는 그런 사무소가 열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병사선발 및 인사관리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투입 되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이후에, 각종 산업체에서 남성대신 여성인력으로 대체해서 상당히 많은 노동관련 기업들에서 여성들이 일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제반 심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투입되고 산업심리, 심리검사, 직업상담, 노동상담 등의 발전이 이뤄지고 소위 HR이라고 하는 Human Relation을 강조하는 시기가 조성되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러한 심리학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면 한국은 미국처럼 사회적 상황이 절실하지가 않았다는 데에,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학문적으로 기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당시에 물론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지만.)

15-1 file no.25



- 2차대전 전에는 대학의 기초학문을 하는 심리학자가 우세
- 대전 후에는 그보다 응용심리학자가 우세
 - 전쟁 중에는 선발 검사, 효율성 증가 담당
 - 전쟁 후에는 군대에서 민간생활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이 주요 업무화됨
- -> 적응 이상 관련 심리치료, 상담심리 발전
- - 퇴역예비군 관련 기관에서 심리학자 대거 채용, 활용;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직업 생겨남; 진단과 치료
- -> 각 대학에 임상심리 교과과정 발전

14-1-25

미국에서는 2차대전전에는 기초학문을 하는 심리학자가 우세했는데 2차세계대전 직후에는 기초심리학자보다 응용심리학자가 더 우세하게 됐다. 전쟁 후에는 군대에서 민간생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해결이 주요 업무가 되는데, 그래서 적응 장애 관련 심리치료 상담심리가 발전했고, 그 다음에 퇴역예비군 기관에서 심리학자를 대거 채용해

서 활용하고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직업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하고 각 대학에 임상심리교과과정이 발전이 됐다. 현재는 대학마다 임상심리 교과과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체는 그러한 변화가 미국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졌다.

15-1 file no.26



- 이 과정에서 심리치료 심리전문가들은 정신과의사와 차별화할 필요성 인식하여
 - 임상심리전문가를 'scientist-therapist'의 틀로 교육, 훈련시킴
 - Boulder Conference에서 도출된 모형
- -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반인의 마음에는 학자적 심리학자보다도 응용적 심리학자가 더 비중을 차지함
- -이후 심리학이 정부지원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한 힘든 투쟁 진행됨 : 사회과학은 과학이 아닌 취급 받음, 정부에서 지원 안 받자, Ford 재단에서 사회과학, 특히 심리학 지원함
- -캘리포니아 대학의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the Behavioral Sciences"가 포드재단에 의해 지원됨

14-1-26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전문가들은 정신과 의사와 차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해서 치료자로서만 아니라 연구자까지 겸한다는,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는 연구자 및 치료자의 역할까지도 겸하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다. 이것이 Boulder Conference에서 도출된 틀의 모형이다. 심리학이 정부 기관 내에서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한 힘든 투쟁을 계속 하였는데, 사회과학은 과학이 아닌 말하자면 인문계학문으로 취급받고 정부에서 지원을 잘 안하였는데, 행동고학교급연구센터(The Center for Advanced Study in the Behavioral Sciences) (CASBS)가 포드재단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스탠포드 대학에 세워져서 이후의 심리학이 그 위상을 높이고 발전하는 데에 기여했다(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등이 머물던 프린스턴대 연구소 이름도 Institute for Advanced Study이다).

15-1 file no.27



- 심리학이 사회, 대중에 서비스하고, 대중이 인식, 인정하면서 심리학의 중요성이 부상되었고
- 응용심리학이 미국에서의 심리학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함.
 - 사회적 가치의 이룸, 사회적 통제 방법, 기술 제공, 사회적 제반 문제의 해결 제시, 인간의 행복에 심리치료분야가 기여함.
- 응용심리학: 인간의 적응 수준 탐지 검사 제작, 적응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치료 보완하여 사회에 적응 수준에 이르게 함 :
 - 기독교시대의 죄의 개념이
 - -> 적응 이상의 개념으로 바뀜

14-1-27

하여간 미국에서는 20세기 중반에 심리학이, 사회 대중에 서비스하고, 대중이 심리학을 인식, 인정하면서 심리학의 중요성이 부상되었다. 응용심리학이 미국에서의 심리학발전에 결

정적 역할을 했고 인간의 적응수준 탐지검사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치료, 보완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수준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것에 심리학이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서 기독교시대의 죄의 개념이 적응이상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심리학이 공헌한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15-1 file no.28



- 1960년대에 사회과학 지원 증가됨 :
 - 미국과학재단 (NSF)에 사회과학분야가 생김 1960년대 후반,
- 임상심리전문가의 틀이 Boulder 틀을 벗어나게 됨
 - 반(反)심리치료 운동,
 - Szasz 등: 정신병은 없다, 잘못 개념화된 것, 허구,
- 인본주의 운동, 적응 필요성 이의 제기
- 상아탑 학문심리학자들이 분리하여 별도 학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 있었으나 불발됨

14-1-28

1960년대의 미국 과학자들에게 사회과학 분야가 생기고 임상심리학자들이 새 임상심리학자의 틀, 즉 과학도 연구하고 치료도 하고, 라는 것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인본주의 운동도 생겨났다.

15-1 file no.29



- George Miller: Giving Psychology away:
 - 단순히 행동 공학의 발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학이 일반 대중에게 인간이 무엇을 바랄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가를 제공함으로써 심리학의 impact가 클 수 있음
 - Our scientific results will have to be instilled in the public consciousness in a practical and usable form. : 심리학의 연구결과를 실제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일반시민의 의식에 넣어 놓아야
 - 1969 - George A. Miller delivered his often-quoted "giving psychology away" APA presidential address in Washington, DC. The formal title of the address was "Psychology as a Means of Promoting Human Welfare."

14-1-29

1969년에 당시 미국심리학회 회장이던 George Miller가 심리학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펼쳐야 된다는 기초강연을 했다("giving Psychology away"). 이론심리학, 순수 심리학 전공자이었던 밀러가 미국심리학회회장이 되면서 심리학을 펼치고, 넓히기 등을 주장했다. 그는 심리학의 연구결과를 일반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일반사람들의 의식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의 입장에 따른 단순한 행동공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학이 일반대중에게 인간이 무엇을 바랄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가를 제공함으

로써 심리학의 영향이 커져간다고 본 것이다.

15-1 file no.30



- 1967: Psychology Today 잡지 출간
- 1969: Time 잡지가 Behavior 섹션을 둠
- 심리학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 노력 시작 -> 계속
- 1980년대: SAT, ETS, 소비자심리, 광고심리, 라디오상담심리치료,
- 책방에 심리학 섹션 생김
 - 한국은 1990년대 들어서야 서점의 교육학/철학에서 분리 독자 전시 시작됨

14-1-30

해를 거듭하면서 심리학의 사회적 공헌이 확장되었다. 1967년에는 미국에서 심리학 대중잡지인 [Psychology Today]가 출간되고, 1969년에는 시사주간지 Time지가 ‘행동’ 섹션을 개설하고, 1980년대에는 심리학자들이 참여하는 SAT, ETS, 소비자심리, 광고심리, 라디오상담심리치료 등이 생겨났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 시작했다.

15-1 file no.31



- 사회현상의 각 측면에 깊숙이 침투한 심리학
- 일반대중이 일상생활, 직업장면, 교육, 상업 등에서 그 관련성, 효과성, 전문성을 인정한 심리학
- 대중의 인식의 바탕 위에 굳게 선 심리학이 과학적, 응용적으로 발전

14-1-31

서구에서는 사회현상의 각 측면에 심리학이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 직업장면, 교육, 상업 등에서, 심리학의 관련성, 효과성, 전문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의 변화가 바탕이 되어서 심리학이 서구에서는 과학적으로, 응용적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다(한국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못 갔지만).

15-1 file no.32

[3.2.]. 인지과학의 형성과 발전

3.2. 인지과학의 형성과 발전



- Cognitive Psychology의 출현
 - 1950's - 1970's : 정확한 일자에 대한 의견 일치 없음
 - 그러나,
 - **Ulric Neisser's**
 - **"Cognitive Psychology" 책이 1967에 출판되며 전기를 이룸**
- 왜 인지심리학이 출현하였는가?
 - 주요 두 이유
 - 1. 행동주의가 복잡한 인간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며 기술, 설명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
 - 기록제: Chomsky의 Skinner 언어이론 비판
 - 2. 미차대전 이후에 여러 학문들의 수렴
 - **커뮤니케이션학, 사이버네틱스, 언어학, 인공지능, 인간공학, 심리학**
- * 기타 내용은 이전 강의 파일 내용 참고

14-1-32

다음에 심리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지과학의 발전사를 서구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인지주의 형성 역사를 언급하면서 설명한 것인데, 하여간 1960년대에 Neisser가 인지심리학이란 책을 출판하면서 이 움직임이 상당히 빨리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2차대전 이후에 커뮤니케이션학이라든지 사이버네틱스 등의 여러 학문들이 심리학과 연결되면서 [인지심리학]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다.

15-1 file no.33



- 인접학문의 수렴
 - 인공지능(컴퓨터과학), 언어학, 철학, 신경과학
 - 마음의 컴퓨터에의 유추: 튜링기계 이론
 - 새로운 방법: 시뮬레이션, 형식적 분석
 - 학제적 틀
 - 실험심리학의 확장
 - **-다른 심리학으로부터의 거리 생기기 다시 시작**
 - 심리학 전체로의 인지주의 확산
 - 신경과학과의 연결: 인지신경심리학

14-1-33

인접학문들이 수렴되고, 인지과학을 통해서 주변의 학문들이 연결되면서 실험심리학, 인지심리학 틀이 점차 넓어지게 되었다.

15-1 file no.34

인지심리학의 확산



- 인지사회심리, 인지발달심리, 인지임상심리,
- 신경인지심리학 (neuro-cognitive psychology), 인지신경심리학, 인지심리생물학 (cognitive psychobiology)
- 인지로보틱스 (cognitive robotics)
- 인지공학 (cognitive engineering)
- 인지기술 (cognitive technology)
- Cognitive Ergonomics
- 인지치료 (cognitive therapy)
- 주변학문: 인지경제학, 인지사회학, 인지인류학, 인지정치학, 인지신학...

14-1-34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의 확산이 이루어졌는데, 인지사회심리학, 인지발달심리학, 인지임상심리학, 신경인지심리학, 인지로보틱스, 인지공학, 인지테크놀로지, 인지-행동경제학, 인지치료, 인지사회학, 인지인류학, 인지정치학, 인지신학, 인지종교학 등의 영역으로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의 분야가 확산되었다.

15-1 file no.35

4. 심리학의 변화 추세, 전망

4. 심리학의 변화 추세, 전망



- 4.1. 심리학체계 변화 추세 일반
- 4.2. 다른 주요 변화들
- 4.3. 과거의 심리학파(이론체계)의 미래 전망
- 4.4. 심리학 일반의 미래 가능 추세
 - 일반
 - 진화심리학의 중요성 증가
 -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핵심축으로서의 비중

14-1-35

다음에 다른 심리학의 변화추세 또는 전망으로, 심리학 체계의 변화추세 일반, 다른 주요 변화들, 과거의 심리학파의 미래전망, 심리학의 미래가능추세 이런 것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15-1 file no.36

[4.1]. 심리학체계 변화 추세 일반

4.1. 심리학체계 변화 추세 일반



- 정신분석학:
 - 그 중요성이나 언급이 약화되었으나, 성격심리, 이상심리
-> 임상심리 등에 건재함
- 인본주의, 실존주의 심리:
 - -positive psychology로 1990년대 말에 다시 부상
- 행동주의:
 - 행동치료, 심리약학; 그러나 쇠퇴, 인지심리학 방법들에 잔존
- 인지주의
 - 여러 영역으로 번져감: 사회심리, 발달심리, 심리치료,
 - 행동주의가 다루지 않던 주제 다룸: 심상, 기억, 판단, 사고, 창의성, 의식, 주의
 - 인지과학 틀 안에서 발전
 - 신경과학과의 수렴, 부분 결합

14-1-58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오고 인지주의 심리학이 떠오르면서 정신분석학의 중요성이, 그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신분석학의 전통은 성격이론이라든지, 이상행동 이론 같은 것은 성격심리, 이상심리 이론의 부분을 차지하여 임상심리 분야 등에 아직도 건재하다고 볼 수가 있다.

다음에 인본주의, 실존주의 심리학의 추세를 보면, 한때 강하게 기존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섰다가 조금 가라앉았고, 1990년대 말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연결되면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으로서 인본주의 후속 심리학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다.

한편 행동주의 심리학은 행동치료 심리학 등에 남아있고 인지심리학 방법론 틀에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다.

반면에 인지주의는 여러 영역으로 번져나가서 사회심리, 발달심리, 심리치료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주의 심리학이 다루지 않던 주제를 다루서 심상, 기억, 판단, 사고, 창의성, 의식, 주의 등의 주제가 인지주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또한 인지과학 틀 안에서 인지주의가 계속 발전하면서 신경과학과 연결되고 수렴되기 시작했다.

15-1 file no.37

다른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면 생물심리학의 변화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뇌 중심의 생물적, 생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동기와 정서의 심리학과 관련하여 그리고 건강심리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심리학과 관련되어 사회생물학, 건강심리학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사회생물학과 관련해서 진화심리학의 떠오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6주차 강의에서 진화론과 다윈을 설명할 때에 언급된 바이다.

15-1 file no.38

[4.2]. APA와 APS의 분할



- 1988: APA와 APS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의 분할
 - APA (임상상담 및 응용: practitioner + professionals 중심)
 - -> 분할:
 - APS (이론, 기초, 과학적 심리학 academics 중심)
- - 실험-인지-생리 심리학이 뇌과학-인지과학 분야로, 기타는 다른 soft 분야로 점차 drift apart 시작됨
 - 예: Dartmouth College: 심리-뇌-과학 학과

14-1-33

그 다음에 주목할 사건은 현재의 심리학의 중심인 미국에서 응용 심리학 중심의 일반심리학회인 미국심리학회(APA)와 과학적 심리학을 강조하는 미국심리과학회(APS)의 분할이 일어났다는 일이다. 임상상담 및 응용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학자들과 이론 기초과학적 심리학자들이 갈라섰다. 심리학의 할 일, 목표 등에서 서로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해서 1988년에 두 집단은 갈라섰다. 그리고 현재 21세기 들어선 현 시점에서 미국대학 중에서는 심리학과내에 hard science의 심리학과 soft science로서의 심리학이 - hard science로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면 생리-생물심리학, 인지심리학 이런 것이 속하겠고, soft science로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면 상담심리, 성격심리, 임상심리 이런 것들이 속할 수 있겠다.- 점차 같은 대학 학과 내에서 둘로 나뉘지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1)

15-1 file no.39

[4.3.]. 심리학 이론체계의 미래 전망

4.3. 과거 심리학파(이론체계)의 미래 전망



- 미래에는
 - 행동주의심리:
 - 방법론적 개념적 기반 제공 영향 계속, 그러나 심리학의 한 분파로서는 쇠퇴
 - 인지심리:
 - 인지과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계속 과학적 심리학의 중심 역할 및 인접 분야의 개념을 제공, 보다 더 신경과학적 특성을 지니게 될 것임. 종합적 과학 특성
 - 생태심리학:
 - 인간행동의 환경생태적 중요성의 강조 -> 인지심리학과 연계 증가
 - 생물심리학:
 - 인지심리, 행동주의심리 연계하여 더 강한 세력, 주류로 부상하고, 인지과학을 통한 더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공학과의 연계 : neuro-informatics, biotech 등과의 연계
 - 정신분석학, 인본주의심리:
 - 영향이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
 - Positive Psychology의 영향 증대?

14-1-32

그러면 다음으로 심리학(이론체계)이 미래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1) 1940년대에도 미국 하버드대를 중심으로 소프트학문으로의 심리학자들은 인류학 등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Social Relation' 학과를 만든 선례가 있다.

해 보자. 미래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에 방법론적 실제와 개념 기반을 제공을 해서 영향을 계속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심리학의 한 분과(체계) 이론으로서는 쇠퇴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험방법에는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전통이 남아있지만 심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인지심리학]은 인지과학과 연결을 통해서 다분히 신경과학적 특성을 지니게 되고, 계속하여 과학적 심리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인접분야에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그 학제적 특성이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지리라고 본다.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의 연결을 중시하는 생태심리학이 강조될 것이고 [생물심리학]은 (인지)신경과학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분야로 떠오를 터이고, 정신분석학이나 인본주의 심리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그 세력이 다소 약화될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²⁾

15-1 file no.40

[4.4.]. 심리학 일반의 미래 가능 추세

4.4. 심리학 일반의 미래 가능 추세



- **미래 21세기에서는 심리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는가?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 미래 21세기의 심리학의 주요 과제는
 -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리학은 내부의 문제들,
 - 특히 응용심리학과 기초이론심리학 사이의 간격의 문제,
 - 심리학 내의 여러 분야나 학파의 생각의 차이와 조각남을 극복하여야 한다.
 - 전문 응용심리 적에서의 실제의 일하면서 처리하는 것도 과학적 지식의 하나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 다른 학파가 아니라 다른 전문영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 아직은 특정 영역에 대한 심리학 지식이 발전 안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은 그러한 분야가 발전될 것이다. 그러한 영역에서 실제적 문제에 심리학 전문가가 적극 개입하여 심리학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발전이 촉진되리라고 본다
- **European Psychologist, June 2000, Volume 5, No. 2**
- **Carlos Rodriguez Sutil**

14-1-46

다음에 미래 21세기에는 심리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는가,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적인 말을 추정하여 적어 본다.

미래21세기 심리학의 주요과제는 사회 모든 사람들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심리학은 내부의 문제, 특히 응용심리학과 기초이론심리학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심리학내의 여러 분야나 학파의 생각에 차이와 조각남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전문적 응용심리측면에서도, 실제 일하면서(practice) 처리하는 것과 과학적 지식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처럼 서로 다른 학파가 계속 나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전문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직은 특정영역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이 발전되어 있

2) 예를 들어 인본주의 심리학이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의 경우이다.

지 않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은 분야가 발전될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 응용적 전문기술이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

15-1 file no.41



- 심리학이 그 동안 실험실에서 현실장면에서 인간의 일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발전시켜온 과학적 방법이 앞으로 더욱 더 실제 생활에 적용될 것이다. 특히 다른 학문/분야 영역과 연관되어서
- 그러한 한 예가 노령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그들의 인지적, 정보적, 정서적, 사회적, 동기적 적응 능력을 높여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 또한 과거의 여러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바뀔에 따라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특히 산업계 인력과 학생들이,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한 테크놀로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과 인지적 적응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심리학 분야가 발전될 것이다.

14-1-41

심리학이 그 동안 실험실에서, 또 현실 장면에서 인간의 일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발전시켜온 과학적 방법이 앞으로 더욱 더 실제 상황에 적용될 것이고, 특히 주변 인접분야에 응용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한 예가 근로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그들의 인지적, 정보적, 정서적, 사회적, 동기적 적응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분야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각종 심리학 분야별 기술(테크놀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 재훈련하는 그런 분야가 발전이 되리라 본다.

15-1 file no.42



- **Q: 100년 후에도 심리학이 여전히 학문 분야로서 남아있을까? 어떠한 형태로?**
- 심리학은 해체되지 않으리라 본다. 심리학의 여러 분야의 수렴 통합이 심리학의 미래의 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심리학은 사회의 개개인 이해와 인간을 체하고 있는 학제에게 해체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리학은 현재 위치를 받고 있는 생물과학과 사회과학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이다. 특히 뇌 신경과학 연구와 사회과학, 각종 인간 삶과 관련된 문제를 연결하여 주는 것이 심리학이다.
- 마찬가지로 심리학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결고리의 또 다른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 심리학은 심리학의 여러 분야, 특히 사회, 인지, 발달 등의 분야가 인문과학과 연결되고 심리학의 여러 분야들이 수렴되면서, 수렴적 통합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본다.
- 심리학 내의 영역별 전문화가 계속 진행되지만, 분화를 위한 전문화라기 보다는, 수렴통합적 연결을 지향하는 그러한 전문화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 그러나 전통적 실험심리학 중심, 인지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중심의 과학적 심리학과 임상-상담-응용 심리 등의 연결과학/인문학적 심리학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되리라 본다.

14-1-42

100년 후에도 심리학이 여전히 중요한 한 학문분야로 계속 남아있을까,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 그런 물음도 던져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심리학은 해체되지 않고 인류 사회의 중요한 학문 분야로서 계속 남아있으리라 본다. 심리학의 여러분야가 수렴되고 내지는 연결이 되는 것이 심리학의 미래의 한 흐름이 되리라 보지만, 심리학이 인류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이해하는 과업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 해체되거나 사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생물과학, 사회과학, 신경과학과의 더 밀접한 수렴적 연결이 앞으로의 심리학이 이루어 내야 할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심리학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연결고리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끝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처럼, 하드(硬性) 과학으로서의 실험심리학 중심의 과학적 심리학(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등)과,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등의 소프트(연성)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적 심리학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계속 되리라고 본다.

15-1 file no.43



- 응용심리학과 기초심리학의 경계 더욱 모호해짐
 - 응용분야가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됨
- 소프트 심리학과 하드심리학의 점진적 분리
 - 인지과학/신경과학과 연결된 실험심리학의 자연과학화 경향 강화여지기
 - → 거리감, 괴리감 증가
 - 인공지능, 로보틱스, 신경과학 연결된 하드 자연과학적 심리학의 발전
-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신경과학이 결합된 인지신경사회심리학 발전
 - 진화심리학과 신경과학, 생물학의 연결 중요성 증대
 - 임상, 상담 분야에서 positive psychology의 강화
 - 심리학 전문분야에서의 신경과학에의 의존도 증가
 - 현상학적 접근에의 break-through 가능성 모색
 - global theory 추구 회피 경향은 계속될 것임

14-1-43

또한 응용 심리학과 기초이론 심리학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소프트심리학과 하드심리학이 점진적으로 분리되고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신경과학이 결합된 인지신경사회심리학의 발전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터이다. 그 다음에 심리학 전 분야에서 신경과학의 의존도가 증가될 것이고, 현상학적인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여 심리학의 이론 틀을 모색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학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일반 이론 추구를 회피 경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트라든지, 스키너라든지,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은 굉장히 커다란 거대담론식의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큰 이론 틀을 제시하는 것은 점차 회피되고 작은 연구, 작은 이론 중심으로 심리학이 전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15-1 file no.45

NBIC 융합과학기술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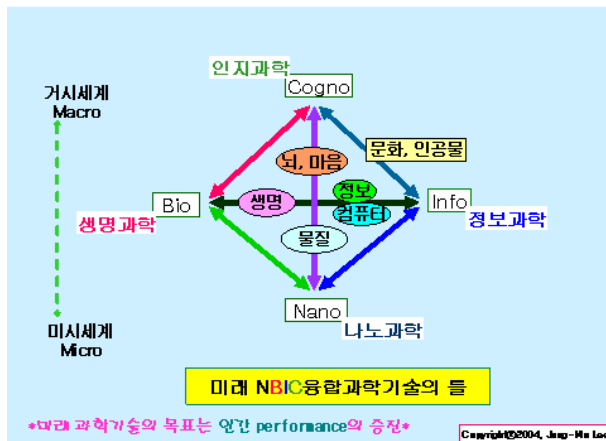


- 다른 이공계 기술과
- 삶의 질, 인문사회과학을 연결하는 역할의 증대
- 삶의 질 증대 관련 기술/ 연구 진전
 - 인간 인지, 적응 능력 증진 기술
 - 인간 도구활용 기술 증진
 - 사회적 공동체 공학 기술 증진
 - 신경과학과의 연계

15-1-46

심리학의 구체적 응용과 관련하여서는, 융합과학기술의 핵심 축으로서의 심리학의 역할이 점증해서, 이미 인지심리학이 인지과학과의 핵심으로서 미래 융합과학기술의 핵심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점차 심리학 전반이 융합과학 테크놀로지와 연결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노(NT), 바이오(BT), 정보(IT) 테크놀로지들이 심리학과 연결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그런 측면이 미래에 더욱 발전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림은 각자 참고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15-1 file no.46



15-1 file no.47



- 심리학과 인지과학
- 심리학과 신경과학
- 의 경계 구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4-1-47

15-1 file no.48

5. 종합

종합



- 가장 큰 변화는 심리학에서 신경생물적, 신경생리적 접근의 중요성의 급증
- 미래에 뇌영상 기법이 계속 발전하면서
 - 근적외선(NIRS)방법 등의 뇌영상 기법의 발전과 user-friendly 기구의 발전은
 - 심리학의 이론적 탐구와 응용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 그런 시점에서 심리현상을 신경적 상태/과정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접근의 비중이 더욱 증가될 것이고
- 여러 응용 분야에서의 신경심리적 응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14-1-48

종합을 하자면, 미래의 심리학의 가장 큰 변화는 심리학에서 신경생물(신경생리적) 접근의 중요성의 급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뇌영상기법이 계속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근적외선 방법 등이 발전하면서 뇌의 세부적인 변화 특성을 잡아낼 수 있게 되어서 심리학의 이론이 상당히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시점에서 심리현상을 신경적인 상태 과정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접근이 더욱 증가될 것이고 그 응용분야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15-1 file no.49



- 그러한 상황에서 심리학은 신경과학과의 연결을 통한 학문적 탈바꿈의 또 다른 변혁이 가능하고
- 이에 대항하는 사회-문화적, 해석적 접근의 진지한 재구성도 가능하여 질 것이다
- 로봇틱스 등의 발전과 인공지능/기계와 인간 지능의 거리가 좁혀짐으로 인하여 (특이점) 마음 개념의 새로운 재구성이 시도될 것이다
- 이와 함께 거론 될 것은 심리학에서
 - 종래의 물리학을 모델로 하여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며 자연과학으로서 커 온 심리학과
 - 인문사회과학을 모델로 하여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을 하며 meaning 중심의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심리학의
 - 대립이 표면화 할 것이고
 - 이에 따른 심리학의 새로운 재구성이 시도 될 것이다

14-1-45

그런 상황에서 심리학은 신경과학과의 연결을 통한 학문적 탈바꿈의 또 다른 변혁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야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하자면 신경과학과 연결한 hard psychology의 변화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에 대항하는 soft psychology, 사회문화적, 해석적 접근의 진지한 재구성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로보틱스 등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계와 인간 사이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서 마음개념이 재구성되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와 함께 거론될 것은 심리학에서 종래의 물리학을 모델로 해서 심리학이 물리학적 모델에 따라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해서 자연과학으로서 커 온 심리학과 인문과학을 모델로 해서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을 해서 meaning 중심의,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심리학의, 그러니까 soft psychology와 hard psychology의 대립이 점차 표면화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심리학의 새로운 재구성이 시도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것으로 15주 1회 차 강의, 즉 심리학의 과거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조망되는가를 다루는 15주 1회 차 내용을 마치겠다. 다음 번, 15주 2회 차에서는 이론체계 측면을 다루도록 하겠다.